

월요광장

기후 위기에 빠진 장바구니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가만히 있어도 땀과 숨이 차오르는 여름이다. 예년보다 한 달 빠른 더위로 누구를 만나도 여름 날씨 인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되어 왔던 기후변화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이상 기후와 자연 현상에서도 관찰되어 왔다. 기후의 '변화'라는 단어가 현재의 심각성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들릴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극단적 기후 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 종말에 보다 가까이 간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때다.

이제는 이상 기후 탓으로 한껏 몸값이 오른 식자재를 장바구니에 넣기 위해 들었다 놓았다 해야 할 지경이다. 가득이나 장기하되는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장을 보기가 무서운 요즘, 포장재까지 일일이 따지고 가려 보자니 골치 아플 일이다.

30년 전 각국의 정부와 민간 단체를 비롯한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모여 사상 최대 규모의 UN 환경 개발 회의를 했다. 당시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매년 더 심해진 기후변화를 제압하는 걸 보면 그 위기는 실제로 극복하지 못했을 뿐더러 심화되어 온 것이다.

수필의 향기

담양역 기차길에서 만난 고독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페달을 밟는다. 내 힘으로 만든 동력에 의해 나는 나간다. 다리 힙줄이 팽팽해지고 팔 근육도 단단해진다. 피부를 뚫고 땀이 송송 솟는다. 오르막길에서는 터질 듯한 심장이 '러너스 하이' (달릴 때 밀려오는 행복감)에 이르면 내 등 뒤의 고독도 절로 신명이 난다.

나 혼자 그만" 마항역에서 만난 촌로의 하소연이다. 정말 인파로 가득했음은 마을 앞 정자에는 한두위인데도 사람이 없다. 어느 마을이건 이 정자를 짓기 위해 주민들이 심혈을 쏟았다. 표지석에 이름을 쓴 수백 명도 부족해서 모두 새기지 못했는데 그 많은 이름, 지금이라도 호명하면 불쑥불쑥 나타날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없는가.

기고

광주에 '평화 문화'를 조성하려면



선봉규 전남대 글로벌다사포라 연구소 연구교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전쟁의 여파는 식량과 에너지의 가격 상승으로 세계 곳곳에서 경제 위기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 실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냉전 문화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까지 이분법적 갈등과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고 확산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평화통일 의식과 감수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쟁·평화·민주·인권 관련 자원(기념관·기념비·기념탑·기념 동상·기념 시설 등)을 발굴하여 생활 밀착형 평화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社說

세계 사로잡은 전남 로컬 푸드, 판로 확대를

전남 지역 농산물이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보성 녹동, 나주 배 등 지역 특산물에 대기업·프랜차이즈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인기 식품으로 자리잡았다.

사들이기로 했다. 전남 농수산물의 인기는 해외 시장 판매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LA에 문을 연 농수산식품 전용 상설 판매장에서는 김·갯감·홍어 등 240여 제품을 전시·판매 중이다.

'국위 선양' 했는데 구조비 물어내라는 정부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故) 김흥민 대장의 1주기 맞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을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無等鼓

여수 지역은 고대부터 해양 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다. 교류를 상징하는 다양한 유물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비파형 동검이다.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수에서는 1000여 기에 달하는 고인돌이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오림동 고인돌은 암각화로 유명하다.

여수의 선사시대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